

학생인권조례 전국화 방안 2차 간담회

2010년 3. 13일(토) 오후 2시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대회의실

참가단체 : 경기지역교육공투본, 다산인권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참교육학부모회)
*참가단체가 적은 관계로 2차 간담회 내용은 결정이 아닌, 안건을 풍부히 하는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함.

1. 일정공유

- 3/7 교육청 축조심의 끝.
- 축조심의 과정에서 체벌이 빠져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체벌 조항이 빠지지 않는 것 같음.
- A안과 B안,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올라갈 것. 교육감이 선택 후 입법예고. 14일 or 21일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임.
- 서울 : 거론되어 있는 민주 진보 후보가 4, 5명 정도인데, 학생인권조례를 공약화 할 것으로 보임.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입장 발표가 4월쯤에 있을 것. 현재 학생들의 지지서명을 받고 있음.

2. 의견 사항

- 공투본 : A안/B안 중 교육감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텐데, 그 대응방안을 다른 단체들은 정해놓았는지.
- 아수나로 : A안/B안에 관해 대응방안은 논의하지 않았음.
- 다산 : 아수나로 의견은 B안이라도 받겠다,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들린다. 다산도 동감. A안이나 B안이나를 두고 전선을 형성하는게 현재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 공투본 : 안 받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A안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활동 등이 필요하다는 말.

3. 선거관련 대응

지지선언

- 지지선언의 경우 선거법 때문에 아수나로 같은 청소년 단체는 참여가 곤란.

기호 0번 청소년

- 서울의 경우 팀이 꾸려져서 적극적으로 준비 중. 수원은 역량 문제로 해야 할지 고민 중.
- 문화제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가장 영향력 있는 시점에(도교육위로 상정될 즈음).
- 청소년 연예인 지지선언? 출연?

4. 학생인권조례 홍보 운동

학생인권조례 지지서명

- 지지서명을 청소년용/비청소년용 따로 나누어 받는 것이 좋겠다. 서로가 갖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둘 다 교육위원회에 제출(도교육위로 상정될 즈음). 취합은 다산에서.

- 비청소년의 경우 공부 문제와 연결되는 담론이 형성되어 있음. 학생인권조례가 공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만드는 담론을 어떻게 깨야 할까.
- 교육위원에게 항의문자 보내기 -> 청소년용 유인물.
- 청소년용 유인물은 아수나로에서 좀 더 보충해서, 비청소년용은 다산or참학에서 만들기로.
- 단체마다 할당을 맡기자. 분담금은 5만원 정도.
- (가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등하교길 캠페인

- 다음 주 수/목부터 시작 예정.
- 수원, 오산, 화성, 남양주, 부천.
- 학생참여기획단 이용도.

유인물 / 판넬

- 유인물은 '들'에서.
- 판넬은 아수나로. 학생인권 중심으로 시리즈 10개 정도? 앞면은 학생인권 쟁점. 뒷면은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

5. 기타

- 전교조에 제안을 할 게 없을까?
- 교사가 참여 주체가 되어야. 회의에 꼭 오는 걸로.
- 교사단체들에 학생인권조례 지지선언 조직 부탁. (단체명이 아닌 '교사 00명')
- 릴레이식으로 학부모단체/교사단체/청소년단체 선언. 이슈화시키기 위해.

6. 다음 일정

- 19일 (금) 늦은 5시. 장소는 민주노총 경기본부 예정.

학생인권조례 전국화 방안 2차 간담회

2010. 3. 13.(토) 오후 2시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대회의실

■ 진행순서 ■

소개/인사

□ 보고안건

1차 간담회 보고

교육청 토론회 보고 및 향후 일정 공유

□ 안건논의

□ 다음 회의 일정

<안건 논의>

1. 선거관련 대응

- 후보자 간담회
- 정책 제안
- 미래유권자선언운동
- 지지선언
- 기호0번 청소년후보 운동

2. 학생인권조례 홍보 운동

- 서명운동(서명지)
- 유인물
- 판넬
- 등하교길 캠페인 : 아수나로 서울, 수원지부 계획

3. 기타

<자료>

학생인권조례 전국화 방안 1차 간담회 결과 _100226

- 정리: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 발언자를 구분하지 않고, 제안된 핵심 내용을 명료화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발언 순서에도 관계없이 내용별로 분류했습니다. 잘못 정리된 게 있으면 의견 주세요~

1. 상황 공유

[자료집 발제]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현황 : 박진
 - 경남학생인권조례 현황 : 고영남 정리, 박진 대신 발제
 - 광주학생인권조례 현황 : 박고형준 발제
 - 각 지역의 교육감 선거 상황과 학생인권조례 : 공현 발제
- =>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발제문 참고

[추가 발제]

- 서울지역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추대위 상황 : 전누리 발제
: 서울지역의 경우 청소년 단위들이 모여 공동정책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청소년노동인권 보장/ 학생인권조례제정/ 학생자치활동 강화와 학생회의 구성 등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음.

[각 단위들의 계획]

- 전교조 경기지부 : 딱히 계획은 없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해나가겠음.
- 좋은교사운동 : 정책 평가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하여 공동 공약을 제안하고 그걸 지지하는 후보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조직해나가면 좋겠음. 학생인권조례를 독립적 아젠다로 만들 수 있는 계획도 고민할 필요 있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 올해 핵심 3대 사업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 운동의 대중적 전개를 결정. 함께 하고 있는 범국민교육연대에서도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청소년인권조례 운동을 설정. 조례 제정은 최소 조건이라는 것, 올 교육감 선거를 넘어서는 중장기적 전망을 갖고 위로부터의 시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대중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 조례 제정 운동이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과 입시폐지 운동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 등의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고 싶음. 전국화 방안을 자체 고민중이었음.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아수나로 수원지부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자문위원회의 학생 자문기구로 학생참여기획단이 구성되어 약 5백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음. 교육청에서 입법 발의하고 나면 교육위 압박 서명운동이나 홍보 캠페인 등 학생들의 주체적

움직임을 조직해나갈 생각. 아수나로 서울/인천지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학교 앞 선전전,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서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

○ 광명시 명문고 학생회 : 야자 선택권 보장, 두발 길이 자유 등 학생인권 관련 공약 내걸고 당선. 설문조사, 서명운동 등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탄압을 많이 당했음. 학교운영위원회의 표 조직 방안 등 조언을 구할 수 있나 해서 참여.

○ 경기 교육희망네트워크 : 25일 내부 워크숍 진행했고 3월 중순까지 2천명 정도 준비위원을 모실 계획. 경기지역 32개 시군 중에서 15개 지부가 이미 건설. 학생인권 정책과 관련해서는 무상급식, 학생자치활동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하고 있음.

○ 군포시민단체협의회 : 군포시에서는 2003년 청소년인권도시 선언이 있었음. 청소년인권조례 제정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청소년조례는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학교랑 한발 떨어져 있음. 4월중 청소년인권조례 제정 제안서를 각 정당 지자체 후보들에게 보낼 계획.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군포시민단체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공동 성명서 내기로 결정. 군포 교육희망네트워크에도 제안하고 있는 중. 4년마다 한번씩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올해 실태조사를 하면서 조례 제정 필요성을 계속 압박해나갈 예정.

○ 경기지역 교육 공투본 : 공투본에서는 27일 내부 워크숍 잡혀 있는데 2010년 계획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잡아서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임.

○ 경기 참학 : 이후 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사업 계획 확정될 예정. 논의할 계획.

2. 주요 논의 내용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대응 방안

- 경기 교육감의 선택에 따라 타 지역 교육감 후보들이 이번 선거 공약에 학생인권조례를 포함시킬지 여부가 달라질 것임. 현재 김상곤 교육감은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런데 경기지역의 경우, 무상급식과는 달리 학생인권은 밑바닥의 흐름이 거의 없는 상태. 몇 개 단체도 의기투합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교육감 의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

-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보수진영에서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전면전을 펼칠 계획.

- 각 단위에서 할 역할은 최대한 하되, 시기별로 비상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경기 지역단체들끼리라도 소통 구조가 구축될 필요 있음. 시기별 쟁점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용도, 행동도 준비되어 있어야.

행동 차원에서는...

- 우선 3월 7일 예정된 교육청 조례 공청회 이전에 여러 단위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 그래야 공청회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것. 교육청 입법 발의안이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B안보다 후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 자문위 안도 아쉽다, 보나 나온 안을 만들라는 압력을 넣어야 함.

- 교사, 학부모 선언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음. 그래야 여론도 달라질 수 있음.

- 앞으로 도 교육위 차원에서 좌절됐을 때, 도 의회 차원에서 좌절됐을 때 등등 각 시기별 세밀한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함. 도교육위랑 싸움 붙을 때는 무상급식 싸움에서처럼 붙을 붙이는 게 중요.
- 학교현장으로 파급될 수 있는 방안, 홍보 질실. 여러 차원의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중적 홍보가 필요함.
- 교사, 학부모들은 이 사안에 대해 소극적. 학생들 스스로가 많이 나서야 함.

다른 차원에서는...

- 사회적 수준에서는 법질서 강조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의 폭력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고,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인권은 반교육, 반교권이라는 구도가 여전히 존재.
- 교권 vs 학생인권의 대립구도를 깨는 게 중요. 교사들의 반감이나 우려를 어떻게 깔 수 있을지 고민해야. 교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현장 분위기 고려했을 때 효과적일 것이라고 봄.
- '김상곤이 애들 데모나 하라고 학생인권조례 만든다'는 식의 구도를 깨고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조례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음.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학부모 공감대가 높은 편이므로 두발자유나 그런 부분보다는 학생인권조례의 다른 요소들을 부각시키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겠음.
- 대중적 접근 방식을 고려하더라도, 유권자들의 정서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돌파해야 하는 지점이 있음.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우려들을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우려들을 민망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짤 수도 있음. 질 수밖에 없는 프레임을 짜 놓고 그 안에서 스스로 한계를 짓지는 않아야.

2) 교육감 선거를 포함한 전국화 방안

- 교육감 선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지만 교육감 선거를 주요 계기로 활용할 필요는 있음.
- 각 지역별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서고 나면 이후 공동 공약, 공동벨트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만약 학생인권조례가 공동 공약에 포함되고, 그 후보들이 당선되면 엄청난 비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임. 후보들과 선거캠프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받아 안도록 할 것인가가 관건.
- 정치권 눈치만 보다보면 일이 되지 않음. 오히려 원칙적으로 다가가야 정치권이 우리 눈치를 보게 돼 있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를 전국화하는 계기로 교육감 선거를 생각해봐야겠지만, 선거에만 매몰되지 않고 좀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행동 차원에서는...

- 학생들이 졸업한 선배들 조직해서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 표로 조직되어야 후보들을 움직일 수 있음.
- 급식운동도 초창기에는 대중적 이해가 낮았음. 지역별로 대중조직 만들고 끊임없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정치인들의 관심도 얻게 됐음. 학생인권조례 운동도 마찬가지로. 다른 점이 있다면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에 합의가 어려운 내용이 더 많다는 것. 선거기간 중에는 공동 공약으로 들어가더라도 문제는 그 다음. 그 다음을 준비하

기 위해서라도 선거기간 중 공론화가 중요.

- 학생인권조례 전국화를 위한 운동본부 등 조직들을 갖추는 게 필요할 듯. 이 조직의 공동 명의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추대위나 선본에 학생인권조례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협약을 맺는 방식도 가능할 듯. 지역별 운동본부로까지 확장되는 것도 중요. 청소년인권에 대한 상이한 시각을 좁혀나갈 수 있는 토론, 워크숍 등이 지속되어야. 핵심 내용을 담은 매뉴얼도 만들어지면 각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을 듯.

3. 논의 정리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는

- 1) 3월 7일 공청회 등 이후 일정별로 필요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공동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 다산인권센터가 중심이 돼서 제안해주면 좋겠음. 각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자.
- 2) 여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각 단위에서 필요한 설명회, 워크숍 등 조직하자. 필요한 자료나 사람은 적극 서로 자원하자.

- 전국화 방안 관련해서는

- 1) 구체적 조직 건설 등 공동 합의는 현재 상태로는 무리. 이미 지역마다 교육감 선거 대응 틀이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들 조직에 내용을 반영시킬 수 있는 주체들을 명확히 하거나 공동행동을 하는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2) 다만 일정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오늘 모인 단위들로부터 시작해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틀 정도를 만드는 것으로 가자. 메일링리스트 만들자.

- 후속 모임

☞ 3월 13일(토) 오후 2시 / 장소는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대회의실(찾아오시는길 참조)

☞ 구체적 계획 갖고 다시 모이자.

*대회의실은 건물 5층에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찾아오시는 길

(http://kgrc.nodong.org/board/bbs/board.php?bo_table=infomation&wr_id=6)

▶ 전철이용시 : 전철 지하 → 지하상가 → 지하상가 제일 끝의 오른쪽 출구 → 길을 따라 계속직진 → 초록색 씨네마타운지나 횡단보도 건너 매산동사무소옆 골든프라자5층

▶ 시외버스이용시 : 시외버스정류장에서 수원역으로 오시는 버스(10여분소요) → 수원역하차 → 수원역건물을 등지고 직진 초록색 씨네마타운지나서 길을 건너 매산동사무소옆 골든프라자5층

▶ 자가용이용시 :

북수원IC → 성대방향 → 화서역방향 → 수원역 → (경기도청, 남문방향)수원역 지나 첫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 → 우측 첫 번째 일방통행로로 우회전(앞에 농협) → 골든프라자 뒤쪽이며 주차장에 주차하시려면 앞쪽으로 가서서 지하주차장을 이용. 지하주차장의 건물뒤쪽 주택가에 주차가능.(일방통행로 주차선외에 주차할 경우 주차위반 단속됨)